

# 역사성 보존을 위한 근대건축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 for Conservation Historicity

이완건\* / Lee, Wan-Geon  
조영배\*\* / Cho, Young-Bae

### Abstract

Just as culture is a collection of lifestyles, Cultural Properties is what is made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is left around us, whether it takes form or no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heir own standards and are trying hard to preserve those with precious values. And in the case of Modern Architecture, because they are still in use in our daily lives and for the lack of recognition, they are continuously threatened during urban changes and developmen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not to preserve Modern Architecture as done in the museum, but to seek a way for it to coexist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s of contemporary cities. Therefore, it is to recognize Modern Architecture as valuable assets, which expresses historicity in urban settings, and to seek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odern Architecture. This is a process in order to find a new method for conservation of historicity.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Modern Architecture have their design characteristics and these can be applied as a design guideline. Therefore the form, material, and the colors of individual Modern Architecture can be analyzed so as to create a design guideline according to their styl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in Seoul,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6 uses and fou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uses.

키워드 : 근대건축, 문화재, 역사성, 보존, 디자인 특성

Keywords : Modern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Historicity, Conservation, Design Characteristics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 사회, 한 민족의 정체성은 역사의 흔적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문화재라고 부른다.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가해진 변형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非可逆性)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들 가운데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근대건축들은 아직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고 문화재라는 인식의 부족으로 도시의 변화 과정 속에서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근대건축이 지닌 경제적 가치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것은 도시라는 지역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도심지 개발과 문

화재의 보존이라는 상반된 개념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도심지 근대건축을 바라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대건축을 통해 이들이 지닌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간의 층위(Layer)가 드러나는 다양한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심 속 문화재로서의 근대건축을 새롭게 평가하고 성장하는 현대도시의 공간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점적 요소인 근대건축을 가로경관 차원에서 보존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근대건축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근대건축 가운데 서울시에 위치하는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각각의 사례들을 현장 답사하고 문헌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 가로경관으로서 역사성 보존의

\* 정회원, (주)유일건축사사무소, 공학박사

\*\* 정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실내건축과 조교수, 공학박사

의미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가로경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성 보존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4장에서는 서울시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디자인 특성들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 2. 가로경관으로서 역사성 보존의 의미 고찰

### 2.1. 가로경관과 역사성

#### (1) 가로경관

‘가로(街路)’는 ‘도시의 넓은 길’을, ‘경관(景觀)’은 ‘지면 위의 풍경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한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로경관’이라 함은 도시의 길 위에 펼쳐진 풍경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관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경관으로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 형태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문화가 담겨 있다. ‘경관은 그 경관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간의 가치를 반영 한다’는 이성걸은 경관, 도시경관(townscape)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sup>1)</sup> 일본에서는 시민차원에서 1960년대 역사적 환경보전의 문제로부터 시작한 도시가로의 경관문제는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보전 및 형성을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도시는 오랜 시간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점적 혹은 면적으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결국 이것은 독특한 가로경관을 만드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현대도시를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가치 있는 것들을 가로경관의 입장에서 보존하는 방법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도시와 역사성

유네스코는 현대에 있어서 역사성이 지닌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서 회원국 간의 인식의 일치를 표명한 바 있다. 제17회 총회(1972년 11월)의 ‘문화 및 자연유산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연 및 과거 세대가 남긴 문명의 자취와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현대의 산물과 과거의 가치 있는 것과 자연의 미를 종합적인 정책안에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이렇듯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현대라는 시간적 괴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흔적들은 보존 혹은 철거라는 단순화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

라 여러 가지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균형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도시는 시간의 나이트가 존재한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 즉, 전통건축, 근대건축 그리고 현대건축이 공존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한 도시의 나이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의 층위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즉, 공존할 수 있을 때만이 도시의 경관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 2.2. 근대건축과 보존의 의미

#### (1) 문화재로서의 근대건축

‘문화’란 학문, 예술, 사상, 종교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모든 것을 뜻하며 ‘재(財)’는 경제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지만 문화재(文化財)라고 하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재란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쓰이고 중국에서는 ‘문물(文物)’,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產)’,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로 사용된다.<sup>3)</sup>

문화재는 문화재가 지닌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며 이러한 가치에 따라 보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장호수(2002)는 문화재가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고, Bernard M. Feilden(1982)는 보존을 통해서 지향할 가치를 감성적 가치(Emotion values-경탄, 정체성, 연속성,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가치 등 포함),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문헌, 역사적, 고고학적, 희소성, 미학적이고 상징적, 건축적, 경관적이고 생태적, 과학적 가치 포함), 실용적 가치(Use values-기능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 포함) 등으로 나누어 이야기 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문화재는 보존되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향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로서 인정하고 이것을 보존하려는 시도들 즉,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제도<sup>5)</sup>(문화재보호법 개정, 2001년)의 도입과 문화재청의 건조물국(현재 문화유산국)에 근대문화재과 신설(2003년)<sup>6)</sup> 등과 같은 일련의 변화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

3)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p.8

4) Bernard M. Feilden, Conservation of Historic Buildings, Architectural Press, 2001, p.6

5) 문화재보호법 제42조를 신설(2001년 3월 28일, 2005년 1월 27일 개정)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6개(2005년 9월 14일 현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6) 문화재청은 2003년 8월에 1국(건조물국) 3과(문화재정보과, 동산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를 증설한 후, 2004년 5월에는 문화재기획과, 건조물국, 문화유산국을 각각 문화재정책국, 서적명승국, 문화유산국으로 개편하였다.

1)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2004, p.123

2) 민창기·권영덕·최선주, 도시의 역사성 보전,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6.9, p.3

는 문화재 개념의 확대 및 기존의 지정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화재의 대상 및 시기가 폭 넓게 적용되고 이러한 대상들을 보존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보존의 의미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을 다루는 개념 내지 방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문화재 보존(保存)과 관련된 용어로는 보전(保全), 보호(保護), 복원(復元, 復原), 보수(保守), 보강(補強)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그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존(conservation)과 보전(preservation)의 용어<sup>7)</sup>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onservation'을 '保存'으로 번역하고 문화재와 관련해서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1>은 영국과 미국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이 정의하고 있는 보존 관련 용어들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Feilden(1982)의 의견과 같이 'conservation'을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復元'과 '復原'을 서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중 '復元'은 구체적인 증거와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파손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復原'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파손된 문화재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복원하는 행위를 지칭한다.<sup>8)</sup>

<표 1> 보존(保存) 관련 용어들의 의미<sup>9)</sup>

	Fitch(미국)	Feilden(영국)	일본	의미
小 ↑ 개입의 정도	preservation	prevention of deterioration, preservation	保護 / 保存	퇴화의 방지 (간접 보존)
	Conservation and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r direct Conservation)	保存 / 補強	조직의 강화 (직접 보존)
大 ↓	reconstitution		組立 / 再構築	
	adaptive use	restoration rehabilitation	修復 / 活用	복원 / 기능 회복
	replication reconstruction	reproduction reconstruction	復元 再建	재현 재건

3. 역사성 보존의 경향

7)보존과 보전으로 번역되는 conservation, preservation은 학자들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preservation'은 문화재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원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保全'으로, 'conservation'은 유지한다는 의미임으로 '保存'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8)강대일·이수정, 文化財 保存의 概念과 理論, 전통문화논총 창간호, 전통문화학교, 2003, p.111

9)유럽에서는 'Conservation'이 보존(保存) 전반을 의미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田原幸夫, 建築の保存デザイン, 學芸出版社, 2003, p.38

3.1. 역사성 보존의 방법

근대건축이 지닌 역사성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보존 장소와 형식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장소에 따라 현지(現地) 보존과 이축(移築) 보존이 있고, 보존 형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보존, 부분 보존과 이미지 보존으로 나눌 수 있다. 보존에 있어서 '장소성'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보존은 원형을, 부분 보존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일부분(외피, 디테일, 실내)을 그리고 이미지 보존은 새롭게 건축하는 건축물이 과거의 건축물을 연상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건축은 문화재적 가치 정도에 따라 이러한 물리적 방법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원형 보존으로, 등록문화재는 부분 보존 가운데서도 외피 보존으로 그리고 미지정 문화재는 적어도 요소 및 이미지 보존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로경관 차원에서는 '외피 보존'의 형식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외피 보존은 지가(地價)가 높은 도시에서 역사적 건축을 보존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건축주에게는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건물의 외관을 통하여 기억의 흔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보존의 범위로서 어느 정도까지를 보존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잘못하면 보존의 의미가 쇠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로서 공사 시 어떻게 외피를 보존할 것인가이다. 셋째, 미(美)적 문제로서 기존의 역사성을 지닌 외피와 새로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이다. <표 2>와 같이 역사성을 지닌 기존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을 이용하여 몇 가지 유형<sup>10)</sup>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와 같이 사례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용의 문제로서 신축보다는 이렇게 기존 부분을 보호하면서 공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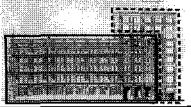
외피 보존은 가로경관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보존 방법이지만 위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주에게는 반드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외피를 보존함으로써 이에 따른 개발의 이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3.2. 가로경관으로서 역사성 보존의 사례




현재 서울시 근대건축의 보존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표 3>과 같이 근대건축의 원형을 보존(한국은행본관, 신세계 백화점본관 등)하거나 가로에 면한 일부 외피를 보존(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명동 구국립극장 등)하는 부분 보존의 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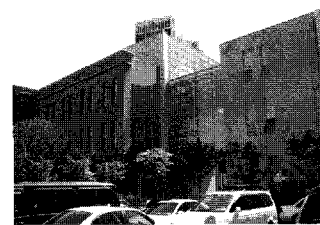
10)David R. Dibner·Amy Dibner-Dunlap, 하계명 譯, Building Addition Design(建築増改築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pp.144-153

<표 2> 역사적 건축물의 증·개축(增·改築)시 외관 형태 디자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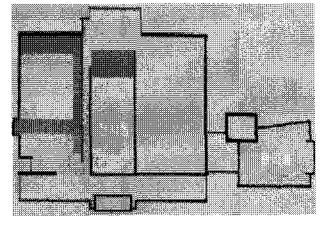
유형	복사 (Duplication)	대조 (Contrast)	유추적 도입 (Recall)	맥락 (Context)	전이 (Transition)
내용	원래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하여 만든 것을 본 건물에 첨가한 방법	새로운 부분을 기존의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르게 디자인 하여 본 건물과의 대비를 통한 원래의 개념을 강조하는 방법	본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나 모티브(Motive)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분에서 기존 건물의 형태를 '유추'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부분을 현대적 어휘로 계획하지만 본 건물과 조화되게 디자인을 고려하는 방법	새로운 부분이 대조를 보여주면서도 본 건물과의 전이적 형태를 포함하는 방법
사례	 평면 State Capitol Building / Salem, Oregon	 평면 Main Hall, Vassar College / Poughkeepsie, New York	 평면 Gothic Revival Church / Wikes-Barre, Pennsylvania	 평면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San Francisco, California	 평면 National Saving & Trust Bank / Washington, D.C.
	원 건물의 디자인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양 날개부에 2개의 대칭되는 건물을 증축	본관에 새로운 대학 센터의 증축을 목표-새 건물은 기존 건물의 표현을 존중하지만 요소들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디자인	이미 도서관으로 개조된 기존의 고딕식 교회와 어울리도록 붉은 벽돌과 석회석을 사용하고 창(窓) 주위의 고딕양식을 상기시킴	주변의 빅토리아식 주택들과 어울리는 설계를 목표로 주택들의 목재 판 마감에 연상시키는 8인치 간격의 수평줄눈이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용	창(窓)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기존 건물의 특징과 유사하게 중앙 부재를 강조시킴

<표 3> 가로경관으로서 근대건축의 보존사례

한국은행본관 (화폐금융박물관)	일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구 대법원)
전체 보존	부분 보존	
원형(전체)	일부 면	파사드(facade)
		
2면(소공로, 남대문로) 도로변에 접한 대지, 도심에 있지만 넓은 대지에 존재함으로 원형 보존 가능	3면(세종로, 종로, 청계천로)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 최소한의 제거 후 입면 보존	덕수궁 쪽 전면부에 옥외광장을 둔 배치, 광장 쪽 전면 부를 보존한 형식
은행-박물관	업무시설-미술관	재판소-미술관
사적 제280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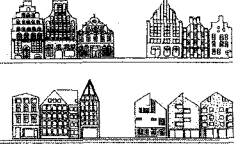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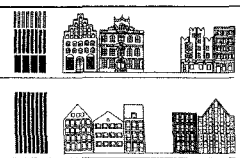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동과 관리동 전경



<그림 2> 서울시립미술관 배치도 (전시동과 관리동)

<표 4> 뤼벡(Lubeck)시의 디자인 조례

건물의 타입	
처마가 들어간 타입 프로포션은 세로로 길게 한다. 파사드는 1층과 2층 이상의 2가지로 조닝하여 수직성을 강조한다.	
다양성 모든 파사드는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 다양성은 적어도 조닝, 벽과 개구, 창문과 문, 벽의 조소성, 재료, 색 또는 구조 등에 따라 특징지을 수 있다.	
수직성 예를들면 개구나 창문의 위치 등 많은 디자인 요소는 서로 수직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파사드는 그 중심의 수직축에 가지런하여야 한다.	
개구부 개구부는 벽 안에 직사각형 혹은 예외적으로 정사각형 배합(proportion)으로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큰 단위나 때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	

백하고 있다.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은 가로경관 차원에서 파사드(Facade)를 보존한 최근의 사례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재판소가 있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재판소가 세워졌다. 이 건물은 해방 후에 대법원으로 사용되었다. 주변은 근대기에 외국인들의 정치 활동의 중심지로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배재학당, 석조전 등이 밀집해 있는 역사적 장소이다. 따라서 새로운 활용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건축물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덕수궁 쪽 옥외광장의 전면부만은 보존될 수 있는 외피 보존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광장 쪽의 가로경관이 고려된 방안인 것이다. <그림 1, 2>와 같이 새로이 증축된 관리동의 경우도 기존 건축물의 건축어휘를 이용한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 건축물은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생존의 여부가 문화재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보존 또는 철거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 문화재보호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도심의 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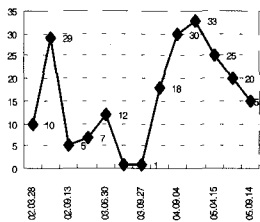
건축들은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서울시립미술관은 비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역사적 경관을 제공할 수 있고 현대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원형 보존 또는 철거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역사의 흔적을 지닌 건축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일의 뤼벡(Lubeck)시의 경우, 중세의 역사적인 거리 보존과 창조를 위해, 뤼벡시의 구 시가지에서는 연속적으로 건축물이 늘어선 거리를 8개로 분류하여, 건축 타입이나 프로포션(propotion), 파사드(facade)의 개구부나 마무리 등에 대해 상세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 <표 4>와 같이 조례에 대한 참고로 다음과 같은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도시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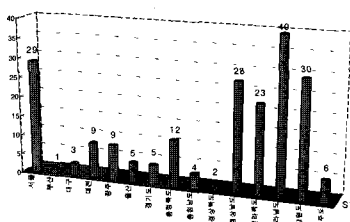
#### 4. 역사성 보존을 위한 서울시 등록문화재의 디자인 특성 분석

##### 4.1. 현황

등록문화재는 <그림 3>과 같이 2002년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2005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206개<sup>12)</sup>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림 4>와 같이 서울 지역은 29개의 근대건축이 등록되어 있다. 연구 대상은 이 중에서 근대건축 및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건축물에 있지 않는 대상<sup>13)</sup>을 제외한 18개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5>를 보면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건축들로서 주거, 교육, 업무, 문화·집회, 궁궐, 휴게, 온실이라는 용도들로 사용되었다.



<그림 3> 등록일별 현황



<그림 4> 등록문화재의 지역별 현황

##### 4.2. 용도별 형태 디자인 특성 분석

서울시 등록문화재인 대상 근대건축들은 주거(2동), 교육(6동), 업무(일반-2동, 공공-3동), 문화·집회(2동), 궁궐(1동), 휴

11) 日本建築學會, 建築設計資料集成-總合編, 産業圖書出版社, 2002, p.559  
 12) 건축물(일반건축물, 특수목적시설물), 토목시설물(교량, 터널, 댐, 상하수 시설), 기타시설물( 경의선장단역지, 금융조합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다.  
 13) 서울 번동 창녕위 궁제사, 원서동 고회동가옥, 계동 배림가옥, 누상동 이중섭가옥, 홍지동 이광수가옥, 통인동 이상가옥, 평창동 박종화가옥, 홍파동 홍난파가옥, 돈암장,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이상범 가옥 및 화실

<표 5> 대상 근대건축의 현황

시기 (준공일)	문화재명	규모 용도		시기 (준공일)	문화재명	규모 용도		
		구조	구조			구조	구조	
1900 ~	1900 덕수궁 정관현	B1, 1	휴게	1930 ~	1931 서대한민국기독교교육원	B1, 2	주거 조적조	
	1907 구서북학회 회관	B1, 2	교육		1935 태평로 구국회의사당	B1, 3	교육 RC	
	1909 창경궁 대은실	1층	온실 주철골+목조		1935 이화여대 파이퍼홀	B1, 3	교육 RC+석조	
1910 ~	1910 덕수궁 석조전동관	B1, 2	궁궐 RC		1936 영등포구경성방직사무동	1층	업무 조적조	
	1915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B1, 3	교육 RC		1938 화동 구경기고교	3층	교육 RC+조적조	
	1916 배화여고 생활관	B1, 2	주거 조적조		1938 덕수궁 석조전서관	B1, 2	문화·집회 RC	
1920 ~	1920 년경 신촌 역사	1층	업무 조적조		1939 대방동 서울공고본관	3층	교육 RC	
	1926 서울시청 청사	B1, 4	업무 RC		1940 ~	1942 공릉동구서울공과대학	B1, 3 / 4층	교육 RC+조적조
	1928 남대문로한국전력사옥	B1, 7	업무 RC		1945 ~	1962·1972 의령구중앙정보부강당	2층	업무 RC

게(1동), 온실(1동) 용도로 사용되었던 건물들로 건립 당시의 역사성을 지닌 디자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하여 디자인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주변 건축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건축의 보존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살아 있는 가로경관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용도별로 분류하고 근대건축의 입면을 지붕부, 벽체부, 기단부라는 3등분의 수직체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주거

<표 7>과 같이 배화여고 생활관과 서대문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의 2개동이 대상 사례이다. 배화여고 생활관은 당시(1916년) 선교사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20세기 초의 서양 선교사 주택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고, 선교교육원은 당시(1931년 건립) 한국 선교사들의 사택으로 활용되었던 건물로 한국 기독교장로회의 역사를 말해주는 건물이다. 이들은 모두 적벽돌의 조적<sup>14)</sup>으로 마감되고, 지붕은 경사지붕과 난방을 위한 굴뚝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길게 내민 처마 형태, 각 층을 구분하는 수평 줄눈은 외관을 특징짓고 있다. 배화여고 생활관은 발코니로 정면 출입구 상부를 마감하면서 이에 따른 난간과 서양의 도리식 기둥은 파사드를 구성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서양식 외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붕은 전통 한옥의 기와 형식을 갖추고 있어 절충적 특징을 보인다. 선교교육원은 캐노피를 길게 내밀어서 출입구를 강조하고 아치형의 창호를 2회, 3회 반복 사용함으로써 외관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14) 선교교육원은 하부에 석조 마감을 하여 반지하의 아래층과 지상층을 분리하고 있다.

(2) 교육

<표 8>과 같이 1907년에서 1942년에 준공된 사례들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용도의 근대건축물이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이전의 양식적 경향<sup>15)</sup>에서 근대의 합리주의적 특징을 지닌 형태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1935년)과 화동 구경기고교(1938년)를 전후하여 이전에는 아치창호(semi-arch, pointed arch형, key stone 포함), 코너석, 엔타블레처(entablature), 지붕창(dormer),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기법의 외관 디자인으로 양식적 경향을 보이나 이후에는 근대건축의 모던한 박스형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창호들을 반복에 의해 배열하여 입면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수평 또는 수직의 긴 창호를 사용하여 수평감이나 수직감을 강조하고 있다.

외관은 적벽돌의 조적식과 석조 그리고 페인트 마감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시설로서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출입구를 돌출시키거나 수직의 기둥, 탑(塔)과 정면 박공(pediment)을 사용하고 있다.

(3) 문화·집회

<표 9>와 같이 태평로 구국회의사당과 덕수궁 석조전 서관이 대상 사례이다. 태평로 구국회의사당은 시민회관, 영화관, 국회의사당 등으로 사용되어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종로 일대에 경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외벽은 뽀찔 마감으로 되어 있고 도로의 확장으로 현관이 철거되고 내부가 개조 되었지만 정면 탑의 상징성과 권위성과 같이 전체적인 형태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덕수궁 서관은 1938년 이왕가의 미술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전시시설로 신고전주의 양식을 띤 근대미술관이다. 기단의 설치와 전면의 코린트식 원형 열주, 엔타블레처(entablature) 등은 신고전주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 단순화된 창호 디테일과 박공(pediment)을 생략한 것은 모던한 근대건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업무

<표 10>의 신촌역사<sup>16)</sup>와 같이 공공업무시설과 남대문로 한전사옥<sup>17)</sup>과 같은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진다. 서울시청 청사의 절충식 르네상스 양식과 남대문로 한전사옥의 외벽에서 나타나는 치형의 창호 인방, 단순화된 오더의 벽기둥, 수평의 엔타블레처(entablature) 등에서 양식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외벽의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수평과 수직의 긴 창호, 정면을 강조하기 위한 탑 등은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외벽은 적벽돌, 석조, 페인트, 뽀찔 마감의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다.

15) 건국대학교 구서북학회회관(르네상스 양식)과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고딕 양식)이 있다.  
 16) 1906년 용산과 신의주간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이에 따른 부속 철도역사로 건립된 신촌역사는 1920년대의 조적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목재지붕틀, 창호와 굴뚝 등이 원형으로 잘 남아 있다.  
 17) 1920년대 말 서울에 건립된 사무소 건물로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5) 궁궐(宮闕)

<표 11>과 같이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대한제국 시절에 건립된 궁궐시설이다. 기단, 이오니아식 기둥 열주와 박공 등이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형의 기둥과 난간, 창호, 외벽의 러스티케이션(rustication) 기법들이 디자인 특성이다.





(6) 휴게(休憩)

<표 12>와 같이 덕수궁 정관헌은 대한제국시절 고종황제가 궁(宮) 안에 휴게 용도로 건립한 것으로 다양한 양식과 건축재료의 사용이 특징이다. 휴게를 위한 전면의 대공간과 후면의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며 대공간 주위로 회랑 공간이 감싸고 있다. 회랑의 목재 기둥과 주철재 난간 그리고 대공간을 감싸고 있는 석조의 서양식 기둥은 대조를 이루며 후면의 적벽돌의 조적식 매스에서 아치형의 인방 디테일 등이 눈에 띈다. 지붕은 전통 팔작지붕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처마는 돌출되고 있지 않다.

(7) 온실(溫室)

<표 13>과 같이 창경궁 대온실은 근대건축의 주재료인 철과 유리를 사용한 대표적 건축물이다. 주철골과 목재를 구조로 하여 외피를 유리로 감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온실 건축이다. 아래는 석조 기단을 설치하고 상부 입면을 구성하는 단위 창호는 크게 3등분으로 구성하였다. 아래는 격자형, 중간은 첨두 아치형(pointed arch), 윗부분은 빗살형의 창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6> 근대건축의 벽체부와 기단부 재료 차이에 의한 형태 특징 분석

항목	타일(中)+석재(下)	벽돌(中)+석재(下)	유리(中)+석재(下)	석재(中)+석재(下)
대표 사례				
내 용	재료별 마감처리 달리함-러스티케이션 기법 사용	재료별 마감처리 뿐만 아니라 코너석 등이 특징	이질 재료의 접합부 마감이 독특함	코너석 또는 상하부 재료의 마감처리를 달리하고 있음
사 례		133		· 52, 80, 81

위에서 살펴본 근대건축의 형태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표 6>과 같이 재료 또는 마감 처리에 변화를 주어 특색 있는 외관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표 7~1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개개의 형태 요소들과 재료들은 그 근대건축을 특징짓는 요소로서 건축을 떠 올리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근대건축이 지닌 디자인 요소를 보존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근대건축이 지닌 역사성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3. 색채 디자인 특성 분석

<표 7> '주거'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태(벽)	창1	창2	기타	기둥	지붕	굴뚝	처마	
93	배화여고 생활관											· 한식과 서양식의 절충형
	1916	돌출형-R	사각형1,반복	외벽-조적	사각형2	사각형3,반복	수평 줄눈	기둥, 난간	경사-팔작	굴뚝	돌출 처마	적색 계열
133	서대문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1931	돌출형-R	사각형	석조, 조적	아치형1,반복	아치형2,반복	수평 줄눈		경사 지붕	굴뚝	돌출 처마	백색+적색
비고		출입구 형태-R(사각), A(아치)										

<표 8> '교육' 용도 특성 분석표의 디자인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태(벽)	창1	창2	창3	기둥, 기타	지붕	기타1	기타2	
53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 르네상스 양식
	1907	돌출형-R	사각형	석조, 조적	아치형			굴뚝	경사 지붕	정면 탑	엔타블레처	백색+적색
3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 북측-원형 · 내부 구조변경
	1915	돌출형-R		외벽-조적	사각형,반복	아치형,반복			경사 지붕			적색 계열
14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퍼홀											· 고딕양식
	1935	매입형-A	사각형1	외벽-석조	아치형-3분	사각형2,반복	사각형3,반복	사각형4w	경사 지붕	페디먼트	지붕창	백색 계열
2	화동 구 경기고교											· 내부구조 변경
	1938	돌출형-R	사각형1,반복	페인트 마감	사각형2	사각형3,반복			평지붕	정면 탑	코너 창	백색 계열
13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 교 본관											· 바닥,벽,계단 - 원형
	1939	돌출형-R		외벽-조적	수평사각형	사각형1	사각형2b	원형 기둥	경사 지붕	페디먼트		적색 계열
12	(생산정보 공학관)											
	1942	돌출형-R		외벽-조적	사각형1	수직 사각형	사각형2b		평지붕	정면 탑		황색 계열
	(전기정보 공학관)											
	1942	매입형-R	사각형1b	외벽-조적	사각형2,반복	사각형3,반복	사각형4b,반복	사각 기둥	평지붕			황색 계열
비고		출입구 형태-R(사각), A(아치)			w(좌측면), b(매면)							

<표 9> '문화·집회'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태(벽)	창1	창2	창3	기둥	지붕	기타1	기타2	
11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 현관철거 · 내부개조
	1935	코너돌출-R	사각형1	외벽-뽀칠	수직사각형1	수직사각형2			평지붕	정면 탑		백색 계열
81	덕수궁 석조전 서관											· 신고전주의 양식
	1938	돌출형-NC	사각형1	외벽-석조	사각형2	사각형3w	사각형4w	코린트 원형	평지붕		엔타블레처	백색 계열
비고		출입구 형태- R(사각) NC(신고전주의)			w(좌측면)							

<표 10> '업무'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타(벽)	창1	창2	창3	기둥, 기타	지붕	기타1	기타2	
136	신촌역사											
	1920년경	평면형-R		외벽-뿔칠	사각형1	사각형2	다각형		경사-맞배			청색 계열
52	서울시청 청사											· 질종식 르네상스
	1926	매입형-R	사각형	외벽-석조	수직사각형				평지붕	정면 탑	엔타블레처	백색 계열
1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1928	평면형-R	사각형1	외벽-석조	사각형2	사각형3, 반복	사각형4	주두, base	평지붕		엔타블레처	백색+황색
136	영등포 구경성방직 사무동											
	1936	매입형-A		외벽-조적	사각형				경사-맞배			적색 계열
92	의령 구 중앙정보부											
	강당(1962) 및 회의실(1972)	강당(돌출), 회의(평면)		페인트-마감	사각형1 - 회의실	사각형2 - 회의실	수평사각형 - 회의실	사각형4 (그림)-강당	평지붕 - 회의실	경사 지붕 - 강당		청색 계열
비 고		출입구 형태-R(사각), A(아치)										

<표 11> '공권'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타(벽)	창1	창2	창3	기둥	지붕	기타1	기타2	
80	덕수궁 석조전 동관											· 신고전주의 양식
	1910	돌출형-NC	사각형1	외벽-석조	수직사각형	사각형2	사각형3	이오닉, 사각	평지붕 난간	페디먼트	난간	백색 계열
비 고		R(사각), A(아치), NC(신고전주의)										

<표 12> '휴게'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타(벽)	창1	창2	창3	기둥	지붕	기타1	기타2	
82	덕수궁 정관현											· 한식과 서양식의 절충형
	1900	평면형	석조 기단	외벽-조적	사각형b	사각형b-문	반원형	기둥	경사-팔작		난간	적색 계열
비 고		b(배면), r(실내면)										

<표 13> '온실' 용도의 디자인 특성 분석표

등록 번호	문화재명 준공일	기단부			벽체부				지붕부			비고 색채
		출입구	창	기타(벽)	창1	창2	창3	기둥	지붕	기타1	기타2	
83	창경궁 대온실											
	1909	돌출형	석조 기단	외벽-유리	사각형1	사각형2	사각형3		경사-우진	페디먼트	지붕장식	백색 계열
비 고												

근대건축의 형태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관을 구성하는 재료 및 질감, 색채 또한 가로경관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근대건축은 적벽돌, 화강석, 타일, 페인트 등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재료의 특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디테일을 구사하고 있다.

<표 14>와 같이 건물 전체가 단일 색으로 된 단일계 색채 건물과 둘 이상의 색채로 된 복합계 건물로 구분되어 진다.

단일계로는 백색계열, 적색계열, 황색계열, 청색계열로 구분되고, 복합계는 백색과 적색, 백색과 황색, 적색과 녹색계열의 색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건축이 지닌 외관의



색채는 가로에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하여 건축물의 역사성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주변 건축들도 근대건축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색채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4> 색채 디자인 특성 분석

유형	사례	
단일계	백색(白色) 계열	· 회동 구경기고교, 태평로 구국회의사당,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홀, 서울시장 청사, 덕수궁 석조전 동관, 덕수궁 석조전 서관, 창경궁 대온실
	적색(赤色) 계열	· 정동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배화여고 생활관, 영등포 구경성방직 사무동
	황색(黃色) 계열	· 공릉동 구 서울공과대학
	청색(靑色) 계열	· 의령 구중앙정보부 강당 및 회의실, 신촌역사
복합계	백색+적색 계열	· 건국대학교 구서북학회회관, 서대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
	백색+황색 계열	·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적색+녹색 계열	· 덕수궁 정관현

## 5. 결론

근대건축은 일반 건축 문화재와는 달리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근대건축을 보존하는 방안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것들은 지정문화재 제도에 의해 동결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심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근대건축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가로와 관계 속에서 전체 또는 일부 면을 보존하여 근대건축이 지닌 개체 또는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근대건축은 장소성을 반영한 가로경관 차원에서 보존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존의 물리적 방안들 가운데 건축물이 지닌 가치 있는 일부를 보존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심의 근대건축들은 이들이 지닌 디자인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보존함으로써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고 이는 가로경관의 디자인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은 역사적 건축물을 증·개축을 할 때 몇 가지 디자인 유형을 제시하거나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 가로에 면한 건물의 타입 및 파사드의 디자인을 규제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둘째, 서울시 등록문화재인 근대건축을 분석한 결과, 크게 주거, 교육, 업무, 문화·집회, 궁궐, 휴게, 온실의 6개 용도로 분류되며 이중에서 교육(6동)과 업무(5동) 시설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주거의 경우는 서양 선교사들의 주택이지만 배화여고 생활관과 같이 전통의 모습이 지붕에서 일부 보이는 절충형식

을 취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이전은 양식적인 특성을, 이후는 모던한 박스형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문화·집회 시설은 모던한 형태와 신고전주의의 특징을 지닌 유형으로 대별된다. 업무시설은 공공업무 용도인 서울시청청사가 공공성과 권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면의 탑과 절충식 르네상스라는 양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나머지 사례들은 대부분 모던한 디자인이지만 외벽에서 일부 단순화된 양식적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궁궐, 휴게, 온실 용도는 각각 1개 사례뿐이어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개별 근대건축의 특징만을 분석하였다. 덕수궁 석조전 동관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을, 덕수궁 정관현은 대한제국시절 근대건축의 다양한 양식적 특징을, 창경궁 대온실은 근대기 철과 유리로 구성된 온실 건축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셋째, 근대건축의 재료와 색채 또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사례들은 적벽돌, 화강석, 타일, 페인트 등의 재료가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적색, 백색, 황색, 청색 계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고려한 가로경관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 많은 사례들이 자료화 된다면 우리나라 근·현대기 건축들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하여 사라진 건축물의 복원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라진 근대기의 건축들을 복원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참고문헌

1. 강대일·이수정, 文化財 保存의 概念과 理論, 전통문화논총 창간호, 전통문화학회, 2003
2. 김정신, 시대흔적의 보전, 건축 제39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1995
3. 김홍식 외, 문화환경보전과 건축, 발언, 1997
4. 민창기·권영덕·최선주, 도시의 역사성 보전, 도시정보,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1996.9
5. 이규목,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2004
6. 이완건·박언곤,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3호, 대한건축학회, 2005
7. 장호수, 문화재개론, 백산자료원, 2002
8. Bernard M. Feilden, Conservation Historic Buildings, Architectural Press, 2001
9. David R. Dibner·Amy Dibner-Dunlap, 하계명 譯, Building Addition Design(建築増改築 디자인), 태림문화사, 1995
10. 日本建築學會, 建築設計資料集成-總合編, 産業圖書出版公社, 2002
11. <http://www.cr.nps.gov/hps/tps/standguide/index.htm>

<접수 : 2005. 10. 28>